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20-2410 ~ 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음 10월 6일) 제19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을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25일까지... 전북도도 참가

종자·미생물 등 소개 4차산업혁명과의 연계 쉽게 이해토록 꾸며 새만금 잼버리도 전시

국내 최대의 균형발전 축제이자 소통의 장인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대한민국 농생명수도 1번지 전북도'를 주제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주요 정책이 전시되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는 종자, 미생물, 농기계, 첨단농업, 국가식품 등 5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소개되며 자율주행트랙터와 스마트온실모형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농생명간 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과정과 향후계획 등도 전시한다. 박람회에 참석한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에는 농촌진흥청,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전북테크노파크 등 4차산업혁명 및 농생명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를 중심으로 전북도가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발전박람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와 연계한 균형발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지역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대통령직속지역발

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다.

2017 균형발전박람회는 '물고투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개막식, 전시회, 일자리박람회 등 분행사와 컨퍼런스, 청년 소통의 장, 우수사례 발표회, 청년아트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개막식은 이날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7개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정책방향과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자 포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전시회에는 17개 시·도, 12개 부처 등이 참여하여 균형발전정책의 5대 핵심요소인 공간중심, 사람중심, 산업중심, 삶의 질,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시도관, 부처관, 사회적경제관, 청년아트마켓을 구성해 다양한 체험행사가 제공된다. /김진성 기자



2018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예비소집일인 22일 오후 어느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수험생이 막바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북구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돼 23일에 치러진다. 이날 전북도내에서는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2만557명이 응시한다.

오늘 2018학년도 대입수능 도교육청, 돌발상황 대비 관리인력 증원

지진발생 대비 도내 62개 시험장에 소방관 2명씩 추가 배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도내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수능에는 총 2만557명이 응시했으며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등 오후 5시 40분에 모두

끝난다. 전북도내 특별관리대상지들은 오후 8시 20분에 종료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도중 재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능 시행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시험장 운영요원 1,366명, 감독관 2,383명을 비롯해 호송 및 경비경찰 247명, 파견감독관 62명, 중앙협력관 12명 등 수능시험 인원이 총 4,07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진 발생시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62개 시험장에 소방관(응급구조요원1명

포함) 2명씩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안전관리팀, 시설과, 수능 운영팀 합동으로 62개 수능시험장에 대한 안전과 방송 점검을 마쳤다.

또 수능 문답지 보안 경비 강화를 위해 시험지구교육청 담당자 2명, 경찰 2명, 중앙협력관 2명 등 6명을 배치하는 등 상시 경비를 강화했다.

한편 수능 하루 전인 22일에는 수험생 예비소집 및 감독관 예비소집을 실시, 지진대응 매뉴얼 등을 안내했다. /정해은 기자

급변하는 시대 부응할 지역발전 전략 모색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지역발전 전략과 새로운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지역창조포럼'이 2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렸다.

'지방 분권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후원한 자리.

먼저 조원진 처음현법연구 대표는 "지방 분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목이 아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이라며 "자유와 민주,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속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지방은 더욱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헌법 개정과 식량 주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G20국가 가운데 식량안보 자급률이 17위로 일본, 중국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제5회 지역창조포럼'이 2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제5회 지역창조포럼 성료... "지방 분권, 국가 역량 강화로 이어져 재정분과과정서 국제·지방세 배분해야 정부 재정관리 비용 절감"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되는 헌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진 전북대 교수는 "현재 국가재정은 중앙과 지방에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낮은 재정 배분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방이 받는 재원의 배분

이 30%면 지방자치도 30%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과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기능, 국제와 지방세의 배분,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면서 책임을 다한다면 정부의 재정 관리는 비용을 절감해 그만큼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정음 내장산 등 전북 37개소...

전라도 대표관광지 되다

전북도, 광주광역시, 전남도(이하 호남관광진흥협의회)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유치를 위해 전라도의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은 전라도에 산재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홍보하고 지방문객 유치를 위해 시군과 전문가가 추천한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전문가 토론회와 지자체 회의 등을 거쳐, 전북 37개소, 광주는 15개소, 전남 48개소 등 최종 100곳을 이달 22일 선정했다.

호남관광진흥협의회 선정

전북은 한류콘텐츠의 선두주자인 전주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부안 변산반도, 정음 내장산, 무주 구천동 33경 등 생태자원이 풍부하고, 군산시간여행마을, 익산 백제 왕도 왕궁리 유적, 고창 고인돌박물관 등 역사 문화자원도 풍부해 교육여행에 효과적이다.

광주는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해 무등산 권역의 전통문화관·의제미술관, 대인동 예술의 거리 등 문화자원이 많고

영화 택시운전사로 재조명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 5·18민주묘지, 사진찍기 좋은 곳인 광주 맥문동숲길 등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곳들이 눈에 띈다.

전남에는 강진 가우도, 고흥 연흥도 등 전라도 가고 싶은 섬·과장성 축령산, 장흥 우드랜드, 보성차밭, 영광 백수해안도로 등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힐링자원이 많아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여행을 통한 휴식의 장소로 추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김진성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즈시